

채팅과 메신저를 활용한 스페인어 학습 임계량 극대화 방안

김 경 희
단독/울산대학교

Kim, Kyung-Hee (2004), Expansión máxima del efecto de aprendizaje de español a través del Chat y el Messenger. *Revista Iberoamericana*, 15, 1-19.

La mayoría de los alumnos coreanos no alcanzan a comunicarse libremente en español a pesar de sus estudios de muchos años. La razón principal de este fenómeno es porque el tiempo dedicado a su aprendizaje es relativamente poco. Aunque sea un alumno muy estudioso, generalmente no supera más de 1,000 horas en toda la carrera universitaria. Y luego hay muy pocos que practican lo aprendido hasta tenerlo interiorizado en su capacidad lingüística.

En este trabajo proponemos utilizar los recursos de Internet, tales como el Chat y el Messenger, para que tengan más oportunidad de exponerse a las situaciones comunicativas en español. Esto debe realizarse por parte de los alumnos, sin embargo los instructores también tienen que saber bien de éstos para orientar apropiadamente a sus alumnos. También es necesario elaborar instrumentos subsidiarios como el diccionario oracional del español para maximizar el efecto de este método.

Key Words: Aprendizaje del español/ Recursos de Internet en español/ el Chat y el Messenger, 스페인어 학습/ 학습 임계량/ 인터넷의 활용/ 채팅과 메신저

I. 서론

‘스페인어를 안다’라고 할 때, 그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스페인어의 형식적 체계를 이해하고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원어민과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스페인어 언어 체계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전자는 언어학적 스페인어 능력을 지칭하며, 후자는 의사소통적 스페인어 능력을 지칭한다. 국내 스페인어 교수·학습에 있어서 궁극적인 목표는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지만, 대다수의 학습자들은 언어학적 능력을 갖추는 정도에서 머물고, 더 이상 진전을 보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현상은 스페인어 학습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외국어 학습에서 관찰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논고에서는 교육 현장에서의 교수자들과 학습자들의 다양한 노력과 시도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수준의 스페인어 능력을 갖추지 못하는 까닭이 무엇인가를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는 방안의 하나로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채팅과 메신저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1장에서는 스페인어 학습 임계량과 가속화 단계를 분석하고, 제2장에서는 채팅과 메신저를 사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더 나아가 제3장에서는 학습자들이 채팅과 메신저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문장사전”을 설계하고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II. 스페인어 학습 임계량과 가속화 단계

1. 스페인어 학습 임계점과 임계량

외국어 학습의 임계점¹⁾이란 물의 비등점에 비유될 수 있는 것으로

1) 이 용어는 과학 용어가 교육학에 응용이 된 것으로 원래의 의미는 평형상태의 물질 두 상(相)이 서로 같게 되어 한 상을 이룰 때의 온도와 압력을 말하는 것이다. 원자 폭탄의 경우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이 일정한 양이 넘어야 방출된 중성자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원자핵과 충돌하여 연쇄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데, 이 시점을 임계점이

100도 이르러야 물이 끓듯이 일정 수준의 언어 학습 입력이 있어야 말을 하게 되는 시점을 가리킨다. 즉 외국에 나간다고 해서 처음부터 그 나라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그 나라말에 익숙해지는 시기가 지나야 말을 하기 시작하게 되는데, 특히 어린 학습자의 경우 자신이 편하게 느끼기 전까지는 외국어로 말하려고 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이렇게 말을 하기 전까지 침묵하는 기간을 침묵기간(*período de silencio*)이라고 하며, 임계점은 침묵 기간이 끝나고 말을 하기 시작하는 시점을 일컫는다. 임계점에 다다르면 꿈도 해당 외국어로 꾸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임계점까지 다다르는데 필요한 언어 입력의 양을 임계량(*masa crítica*)이라고 한다.(최인철, 1997)

스페인어를 배우는 대학생의 경우 어학연수를 1년 다녀온 학습자의 경우 개인차는 있지만 대개의 경우 원어민들과 불편 없이 일상 회화를 하는 수준에 이르게 되는데 이때의 임계량은 “365일 X 10시간 = 3,600시간”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이와 비교해서, 국내 대학에서 열심히 스페인어를 공부한 학습자의 경우에는 학점이 A+인 경우에도 유창한 스페인어를 구사하는 경우가 드문데, 이 학습자의 학습 임계량을 계산해 보자. 서울대학의 경우 학사과정에서는 130학점 이상을 이수하게 되어 있고 이중에서 교양과목 36학점 이상, 전공과목 39학점 이상을 이수하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공을 최대한 신청한 학생일 경우라도 100학점을 이수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100학점을 이수한다고 가정해 보자. 이 학생이 수업 외에도 1시간 수업 당 9시간의 개별 학습을 통해 심화해 나간다고 가정할 경우의 임계량은 “100학점 X (수업 1시간 + 개별학습 9시간) = 1,000시간”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이러한 1,000이라는 임계량은 3,600시간이라는 임계점에 이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이다. 30도로는 물을 끓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1,000시간의 학습량은 보람이 없이 헛고생으로 끝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현실적으로 학습자들의 스페인어 실력은 A+, A, B+, B, ... F라고 학점으로 평가되고 그들 간의 등수도 결정되지만 의사소통의 능력이라는 기준으로 볼 경우 학습효과는 거의 같은 수준이다.

라고 하고 그 일정한 양을 임계량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임계량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 속에서 학습자들의 스페인어 구사 능력이 특정 교수법을 적용한다고 해서 현격히 높아지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교수자의 교수법이 아무리 좋다할 지라도, 학습자 스스로가 자율 학습을 통해 학습한 내용을 강화하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자동화와 내재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내재화 과정은 수업의 몇 십 배에 달하는 시간을 스페인어 학습에 투자하여야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부단한 노력과 인내를 필요로 하는 것이고 최고 학점을 받기 위한 노력의 몇 십 배에 달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기 때문에 성취하는 학습자가 드물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국내 스페인어 교수자들이나 학습자들은 스페인어 의사소통 능력 배양이라는 도달할 수 없는 목표를 바라보면서, 처음부터 그 목표 지점에는 도달할 수 없음을 알고 도 실질적인 목표인 학점 이수로 만족해 하는 소극적인 자세로 스페인어를 교수하고 학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소극적인 자세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학습자들의 학습 임계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다각으로 검토하여 학습자들의 적극적인 자율 학습을 고무하는 방향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2. 스페인어 학습의 가속화

외국어 학습의 실력 향상 곡선은 점진적이지 않으며 계단식이라는 가설이 있는데, 이는 특정 학습 임계량에 도달하기 이전에는 그 학습 효과가 드러나지 않으며 임계량에 도달해야 비로써 외국어 능력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이때 실력이 갑자기 배가 되는 듯한 느낌을 받는 시점이 학습에 가속성이 붙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어휘 학습을 예로 들 경우, 외국어 습득에 있어서 기초적으로 알아야 할 최소 어휘를 “어휘 임계량”이라고 하는데 읽기 자료에 나오는 단어의 80%를 차지하는 기본 어휘 2,000~3,000개를 의미한다. Lahuerta, J. & Pujol, M.(1996: 118)의 연구에 따르면, 일반인들은 교양 있는 가상의 모국어 화자가 약 10,000개 정도의 어휘를 알지만 사용하는 어휘는 훨씬 더 적은 수라고 생각한다. 유명한 작가들인 로페 데 베가(Lope de

Vega)와 바예 잉글란(Valle Inclán)의 작품들에 사용된 어휘를 분석한 연구들이 이러한 주장을 증명해 주고 있다. 분석에 따르면 전체 사용 어휘 중 단지 2천 개 정도의 어휘가 약 80%를 차지한다. 또한, 일본의 국립국어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스페인어의 경우 1,000개의 어휘로 이 언어의 81.0%를 이해할 수 있으며 2,000개로는 86.6%, 3,000개로는 89.9%, 4,000개로는 91.3%, 5,000개로는 92.5%를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어휘 임계량에 도달하기 전에는 읽기를 하는데 막히는 곳이 많아 학습 수준이 향상되었다는 느낌을 받기 어렵지만, 임계량을 넘은 순간부터는 읽기 자료의 80%이상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학습이 훨씬 수월하게 느껴지며 성취감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듣기와 말하기의 경우를 살펴보면, 기본 어휘 2-3천을 알고, 독해에 가속이 붙어도 듣기와 말하기는 여전히 잘 안 될 수도 있다. 이는 구어체 대화의 듣기와 말하기의 경우 대화에 나오는 기본 표현들의 뜻과 용법 그리고 발음까지 추가적으로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자기 소개하기, 길 묻기, 전화 걸기, 쇼핑하기, 예약하기, 초청하기, 거절하기 등 다양한 상황의 대화에 필요한 기능(función)의 종류는 100개 이상이며, 각 기능별 필수 표현을 친밀한 사이의 표현(informal), 중립적 표현(neutral), 정중한 표현(formal)한 것 별로 각각 2개씩만 익힌다고 가정해도 600여 가지의 표현이 된다. 이러한 표현에 대한 응답으로 2-3가지의 표현이 가능하다고 보면 2,000여 가지의 표현의 용법과 발음에 숙달되어야 대화를 시작하고,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이 확실히 신장되었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가속도가 붙게 되는 것이다.

쓰기의 경우에는 영어로 어학 연수를 가는 대학생들이 가령 3개월 연수를 한다면 평균 주당 1편의 짧은 에세이를 쓰게 되는데, 3개월 동안 약 15편의 에세이를 쓰고 편집을 하는 셈이 된다. 이 정도 에세이를 쓰고 나면 서론, 본론 결론의 3 단락짜리 에세이의 기본 틀에 익숙해지고 이 때부터는 글쓰기에 자신감과 가속성을 경험하게 되고, 어휘량이 증가하고 텍스트의 논리적 구성 능력이 갖추어지면서 또 다른 가속성을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²⁾

2) 이찬승의 영어교육 칼럼 “유창한 영어 speaker의 길(12)-영어 학습의 가속성”에서 인용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임계량에 도달하는 어휘량이나 표현량 혹은 쓰기량 등이 수량적인 것만이 아니며, 학습자가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내재화된 지식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한 어휘를 한 번 봤다고 해서 그 어휘가 내재화 된 지식이 되는 것은 아니다. 서로 다른 언어 상황에서 그 어휘를 접하게 되고 이를 반복 학습함으로써 장기 기억 속에 입력을 시켜 필요한 경우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러야만 한다. 따라서 학습된 지식에 대한 친숙도도 임계량에 이르기 위한 큰 요소임을 주지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 영어의 경우 어휘나 표현에 친숙해지는 데 필요한 노출(exposure) 횟수를 7회 이상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³⁾ 즉 한 어휘나 표현에 대해 3회 노출된 경우 이를 학습된 지식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조금하게 학습 효과를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이며 학습 가속화 현상도 경험하기에는 이른 상태라는 것이다.

따라서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학습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학습의 가속성이 붙기 시작하는 시점까지의 학습 임계량에 해당하는 영역별 지식을 분석한 뒤, 이 지식에 대한 노출 횟수를 증가시키고 친밀도를 높이는데 주력하는 것이 지나치게 많은 양의 지식을 광범위하게 접한 뒤 내재화 과정을 거치지 않아 헛된 지식으로 흘려보내는 것보다 낫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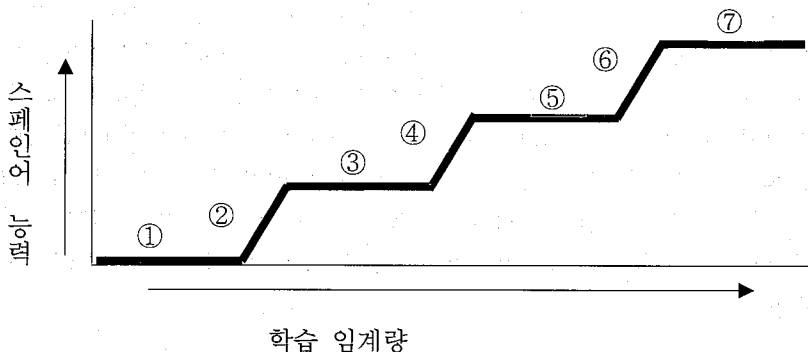
3. 스페인어 실력 향상 곡선

한국인 대학생 학습자들의 스페인어 실력 향상 곡선을 스페인 교육부가 실시하는 스페인 어 능력 시험인 DELE(Diploma de Español como Lengua Extranjera)의 수준을 기준으로 경험적인 데이터를 통해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관찰된다.⁴⁾

(http://www.neungyule.com/ceo/ceo_04.asp?id_num=23).

3) 상기의 이찬승의 영어교육 칼럼에서 인용.

4) 같은 맥락에서, 정찬용(1999: 48)에서는 X축을 시간과 노력으로 하고 Y축을 영어 실력으로 하는 계단형 그래프를 통해 영어 실력의 향상은 노력과 시간이 늘어가도 일정 기간은 수평선을 유지하다가 갑자기 수직 상승하는 것을 반복한다고 주장한다.



[도표 1] 스페인어 학습 성취도

①의 단계는 스페인어 학습을 시작하는 단계로 교과 과정과 학습자의 개별 능력에 따라 다르게 나타겠지만, 일반적으로 스페인어 문법을 교사로부터 한 번 전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개별 학습을 통해 심화하며, 기초 어휘와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의 기본적 표현을 습득하는 단계이다. ②는 처음으로 가속화 현상을 체험하게 되는 시기로 서툴게나마 스페인어로 의사표현이 가능한 시기이다. ③의 단계는 기초 어휘와 표현의 임계량을 넘어서고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의 반복과 숙달을 하는 단계이다. ④는 두 번째의 가속화를 경험하는 시기로 스페인어로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수월해짐을 경험하는 단계이다. ⑤단계는 스페인어 구사에 자신감을 생겨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단계로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배양하는 시기이다. ⑥은 세 번째의 가속화를 경험하는 시기로 전문 영역에 있어도 의사소통을 하는데 구애를 받지 않고 수월해짐을 느끼는 단계이다. ⑦의 단계는 외국인 학습자가 도달할 수 있는 스페인어 실력의 최고의 단계로 원어민의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지만 모든 영역에서 오류나 실수를 범함이 없이 자유자재로 스페인어 구사하는 단계이다.

DELE는 초급(inicial), 중급(básico), 고급(superior)의 세 가지 수준의 시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 네 가지 영역에서 고른 점수를 획득해야만 자격증이 주어지는 시험이다. 경험적 자료를 통

해 관찰해 본 결과⁵⁾ 한국인 대학생 학습자의 경우 ③의 단계에 이른 학습자들이 초급 자격증을 받으며, 열심히 하는 학습자의 경우 2년간의 국내 대학에서의 수학만으로 이 단계에 이르는 것으로 관찰된다. 중급 자격증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의 국내 학습과 6개월 이상의 현지 연수를 받은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며, ⑦단계에 이르러야 획득할 수 있는 고급 자격증은 대학 전공자들이 받기에는 어려운 자격증으로 현지 경험이 3년 이상인 학습자들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II. 채팅과 메신저 활용하기

1. 임계량 극대화 방안

스페인어 능력은 학습된 능력과 습득된 능력이 다르다. 학습된 능력은 학습에 의해서 단시간에 익힌 지식으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잊혀진다. 이에 반해 습득된 능력은 내재화된 지식으로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고 필요한 경우 언제라도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을 말한다. 대부분의 학습자들은 학습된 지식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의사소통 상황에서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학습된 지식을 습득된 지식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필요한데, 이는 우리가 타이핑을 할 때 자판을 보지 않고도 글을 쓸 수 있는 것처럼 자동화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 언어 사용에는 두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어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구강의 다양한 근육을 활용해야 하고 귀도 발화되는 소리에 익숙해져야 한다. 마찬가지로 문어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시각적으로 문자의 배열에 익숙해져야만 한다. 이러한 자동화를 통한 내재화의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고 기계적인 반복도 필요하지만 이는 자칫 지루함으로 인해 학습 효과를 오히려 절감시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실제 상황과 유사한 의

5) 국내에서 시험을 주관하는 주한 스페인대사관에서는 공식적인 통계 자료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사소통 상황 속에서의 끊임없는 경험을 통해 숙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학습과 기억의 정도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읽은 것이 장기 기억에 저장될 확률은 10%이며, 들은 것은 20%, 직접 본 것은 30%, 직접 보고 들은 것은 59%, 소리내어 읽은 것은 70%, 스스로 해본 것은 90%라고 한다. 이러한 이유로 동일한 학습 입력에 대해서도 학습 내재화의 수준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 연구 결과는 교수법의 선택에도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학습자가 교재만을 가지고 독학을 하는 경우와 교수자의 일방적인 설명에 의존하는 문법-번역식 수업을 받는 경우, 시청각 교재를 통해 듣거나 본 경우, 원어민 교수와 상호 작용을 해보거나 연수를 통해 체험해 본 경우의 학습 효과가 현저하게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통해서도 검증되는 것이다.

따라서 스페인어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수업을 통해서는 보고, 듣고, 직접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최대화하고 읽기는 가급적이면 소리 내어 읽기를 권장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설명하였듯이 수업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학습 임계량을 채울 수가 없으므로 학습자들이 자율적인 학습을 통해 학습 임계량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학습을 유도해야 한다. 그러나 학습 임계량을 수량적으로만 계산하고 이를 늘여야 한다는 강박 관념에 사로 잡혀서 학습을 강요한다면 학습 시간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이 커져서 학습이 지루해지고 점차 흥미도 잃어가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따라서 학습자의 흥미를 최대한으로 유지시켜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언어 영역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읽기와 듣기의 경우에는 수동적인 언어 능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내에서도 현지와 유사한 상황의 구현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많은 읽기 자료를 접하고 원어 TV 방송을 시청하거나 라디오 방송을 시청함으로써 읽기와 듣기를 강화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물론 학습자의 수준에 맞도록 교수자의 안내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능동적인 언어 능력에 해당하는 쓰기와 말하기의 경우에는 실제 원어민과의 문자 혹은 구두로의 의사소통 상황의 구현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므로 현지와 유사한 상황을 구현하는 것이 전자에 비해

조금 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에서 스페인어 학습 임계량을 최대화할 수 있는 대안으로 인터넷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인터넷 상에는 읽기와 듣기의 경우에는 무한한 자료가 제공되고 있다. 물론, 스페인어 학습 초보자가 자신의 수준에 맞는 자료에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한계는 있다. 쓰기와 말하기의 경우에는 문자 채팅뿐만 아니라 음성 채팅 및 화상 채팅도 보편화되어 학습자의 능력에 따라 다양한 원어민과 자유로운 사귀를 통해 스페인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역시 스페인어 초보자의 경우에는 시도하기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학습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초보자들이 이러한 인터넷 자원에 보다 쉽게 접근하여 스페인어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동시에 임계량을 최대화하여 학습의 효율성을 배가하기 위해서는 교수자가 어떻게 안내를 해야 하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해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채팅창에 접근시키기

스페인어의 기본적인 표현은 학습하였지만 인터넷상의 자료를 이해하기에는 부족한 학습자가 원어민과의 채팅을 시도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수자의 자상한 안내가 필수적이다. 채팅 사이트를 검색해서 채팅창 안으로 들어가기까지 인터넷 페이지에 적혀 있는 문자 정보를 다 이해하지 않아도 가능하도록 가장 기본적인 정보를 학습자에게 제공하여 주는 것이다. 그 한 예로 본 저자의 개인 홈페이지인 “김경희의 스페인어 강좌”⁶⁾에서는 [스페인어 채팅 체험하기]라고 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단계를 제시하고 있다.

6) <http://www.pufs.ac.kr/~espanol>

[표 1] 채팅창에 접근하기 위한 지시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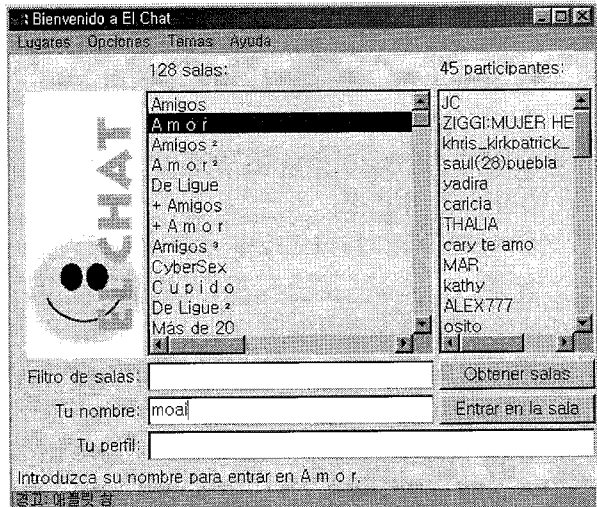
- **El chat**을 새 창으로 띄우세요.
- 중앙의 [스마일] 버튼을 누르세요.
- 또 중앙에 작은 [스마일] 버튼이 뜹니다. 좀 시간이 걸리지요? 다시 누르세요.
- 이제 채팅방의 카테고리가 보입니다.
- 채팅방을 고르고 하단의 두 번째 입력창 [tu nombre “네 이름”]에 아이디를 입력하세요.
- 입력창 좌측의 버튼을 누르면 입장할 수 있습니다. 혹시 입장이 안 되면 만원이라서 그렇습니다.
- 상단 좌측에 참여자들의 아이디가 보이지요? 다른 방을 고르고 다시 아이디를 입력한 다음 입장하세요.
- 이제 메인 채팅창이 뜨지요? 메인창에서의 채팅은 초보자에게는 어렵습니다.
- 좌측 아이디 리스트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고릅니다.
- 쪽지창이 뜨면 Hola.라고 말을 걸어봅니다. 답이 없을 수도 있어요. 다들 채팅중이라...
- 답장을 받을 때까지 친구사냥을 하는 겁니다.
- 친숙해지면 메신저 주소를 받아서 친구로 등록합니다.
- 메신저 안에 친구가 많이 등록되어 있으면 있을수록 더 좋겠지요. 행운을 빕니다. Mucha suerte!

상기의 지시문에서 고려한 것은 학습자가 인터넷 페이지의 모든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도 원하는 채팅방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가장 쉬운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다. 채팅창의 주소는 하이퍼 링크로 제시하고 있으며 시각적인 정보인 버튼 모양으로 채팅창으로 들어가는 법을 알려주고 있다. [스마일] 버튼을 누르면 [그림 1]의 화면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자신의 아이디를 입력하고 입장하는 방법을 가장 기본적인 스페인어 정보인 “tu nombre(네 이름)”만을 알면 가능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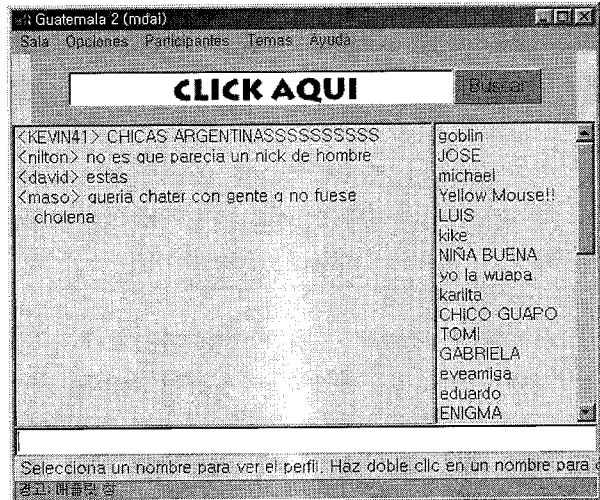
채팅창에 입장한 뒤에 [그림 2]에서 보듯이 원어민들 간의 약자와 속

어가 뒤섞인 대화를 보면서 어리둥절해 하고 당황할 수 있는 학습자들을 위해서 메인 화면에서의 채팅이 어려운 것임을 미리 알려줌으로써 학습자들의 입장을 미리 배려하고 있다. 또한 당황하고 두려워하며 시도도 못해 본 채 그냥 나오는 일이 없도록 1:1 대화를 시작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상기에 언급한 “김경희의 스페인어 강좌”의 [스페인어 채팅 체험하기] 페이지에서는 [표 2]에서 보듯이 다른 채팅 사이트로의 링크도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한 사이트에서 자신감을 얻은 학습자가 유사한 다른 사이트에 도전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이다.



[그림 1] 채팅방 고르고 입장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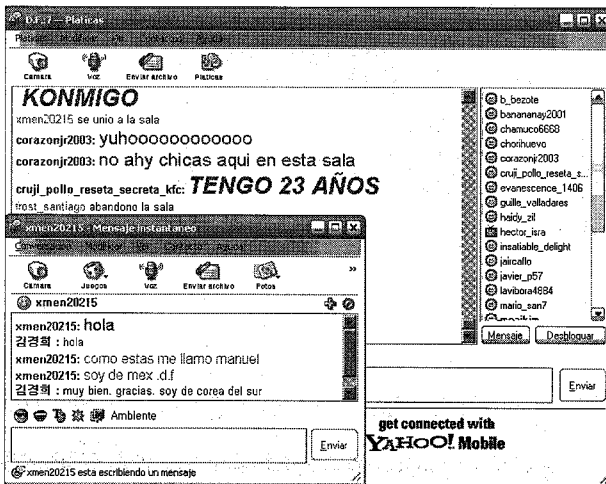


[그림 2] 채팅 메인창

[표 2] 다양한 채팅창 링크

- 스페인어 야후 채팅창 <http://es.chat.yahoo.com>
- 스페인어 MSN 채팅창
<http://groups.msn.com/Editorial/es-es/Content/chat.htm>
- TERRA 채팅창 <http://www.terra.es/chat>
- LATINCHAT 채팅창 <http://www.latinchat.net>
- DIALOGO 채팅창 <http://www.planeta.tierranet.com>

[그림 3]은 야후 채팅 사이트에서 쪽지창으로 1:1 대화를 하는 모습을 담고 있는데, 여기서는 학습자가 먼저 말을 건 것이 아니라 원어민이 먼저 말을 걸어온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스페인어의 강세와 문장 부호 등은 중요시되지 않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으며, 오자와 탈자 등도 허용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채팅에 조금 익숙해진 학습자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에 열려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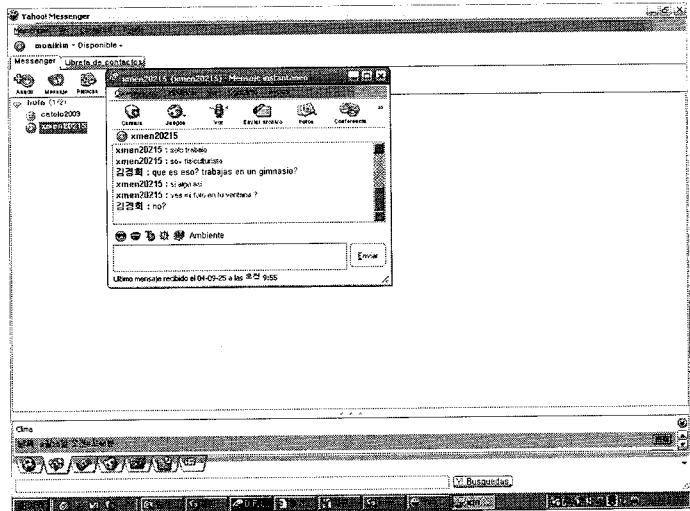
[그림 3] 쪽지창으로 1:1 대화하기

결론적으로 학습자의 학습 임계량을 높이는 방안으로 채팅을 활용하려면, 교수자가 사전에 이 도구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어야 한다. 즉, 학습자가 원어민과의 채팅을 성공적으로 시도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교수자가 사전에 학습자의 어려움과 관심 분야를 파악하고 간접적인 안내자가 되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3. 메신저에 친구로 등록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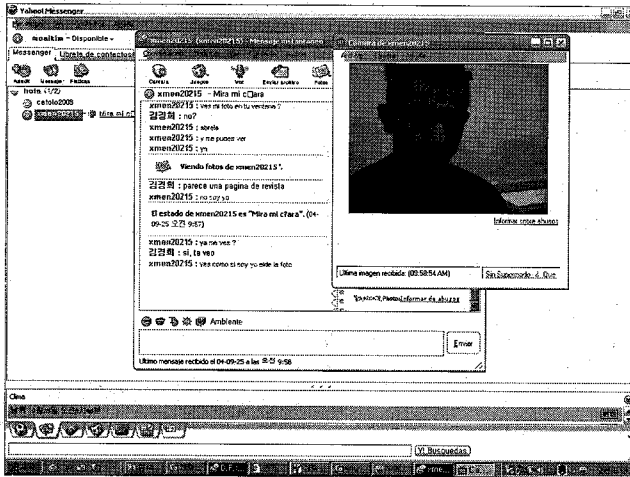
채팅을 통해 마음에 드는 친구를 사귄 경우, 이 친구와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메신저에 등록할 것을 권유한다. 메신저의 경우에는 컴퓨터의 작동과 함께 활성화됨으로 실시간으로 원어민 친구의 접속 여부 확인이 가능하며 수시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커다란 장점이다. 메신저도 문자 채팅과 음성채팅, 화상채팅을 제공함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스페인어를 활용할 수 있다.

[그림 4]에서는 스페인어로 된 야후 메신저에 친구로 등록한 후 문자 채팅을 하는 화면이다. 그러나 반드시 스페인어로 된 야후 메신저를 사용할 필요 없이 한글 야후 메신저에서도 얼마든지 등록 및 채팅이 가능하다.



[그림 4] 메신저에 친구로 등록하기

[그림 5]는 친구로 등록한 후에 웹캠을 이용하여 화상채팅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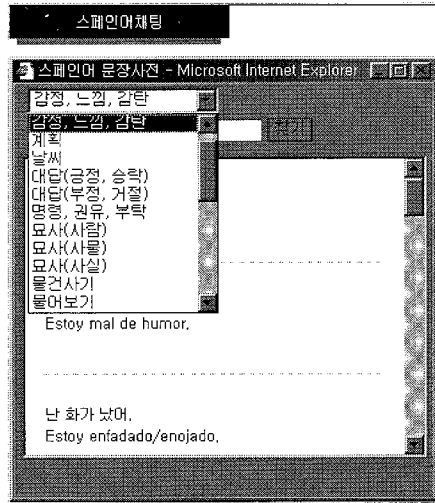
[그림 5] 메신저에서 화상 채팅하기

III. 문장 사전 설계 및 구현

학습자들이 원어민과 의사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부족하다고 절실히 느끼는 것은 어휘와 표현들이다. 하고 싶은 말은 머릿속에 맴도는데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를 몰라서 당황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학습자들의 어려움을 고려해서 교수자로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보조 도구인 “문장 사전”의 설계와 구현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채팅창이나 메신저를 활성화시킨 상태에서 쉽게 참조할 수 있는 사전 형식의 보조 도구는 [그림 6]과 같이 구현될 수 있다. [그림 6]의 문장 사전은 한글로 문장을 써넣거나 키워드를 써넣음으로써 해당 스페인어 표현을 찾을 수 있는 검색 기능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덧붙여, 문장의

유형을 의사소통 상황을 기준으로 [감정, 느낌, 감탄], [계획], [날씨], [대답(긍정, 승낙)], [대답(부정, 거절)], [명령, 권유, 부탁], [묘사(사람)], [묘사(사물)], [묘사(사실)], [물건사기], [물어보기], [반복요청], [소개하기], [시간], [신체상태], [위치, 방향], [의견], [이유, 변명], [인사(감사)], [인사(답례, 사과, 실례)], [인사(만남)], [인사(작별)], [전화하기], [제안, 초대], [축하, 격려, 칭찬, 기원], [취미]라는 16가지 영역으로 하위 구분하고 각각에 대해 유용한 표현들을 제공하고 있다.



[그림 6] 문장 사전의 예

예를 들어 [날씨] 표현에는 예(1)의 문장들이 제공되고 있다.

- (1) a. 날씨는 어떠니? ¿Qué tiempo hace?
 b. 햇볕이 좋으네. Hace sol.
 c. 덥네. Hace calor.
 d. 춥네. Hace frío.
 e. 나쁜 날씨네. Hace mal tiempo.
 f. 바람이 부네. Hace viento.
 g. 비가 오네. Llueve. / Está lloviendo.
 h. 내일은 한국 전체에 비가 올 것이다.
 Mañana lloverá en toda Corea.

또한 부가적으로 어휘도 영역별로 재구성해서 사전 형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어휘의 경우에는 하위 카테고리를 [외모와 성격], [스포츠], [병원, 약, 질병], [여행, 운송, 숙박], [취미와 여가선용], [방송매체], [상점,

의복], [대학, 강의실], [슈퍼마켓], [거리], [신체], [집과 가구], [숫자]라는 13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일상적으로 많이 쓰이는 어휘들을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외모와 성격]을 표현하는 어휘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제공되고 있다.

(2) gordo 뚱뚱한, alto 키 큰, esbelto 미끈한, fornido 건장한, ancho 넓은, estrecho 좁은, pecoso 주근깨투성이의, rubio 금발의, rechoncho 뚱뚱한, menudo 작은, flaco 깡마른, delgado 날씬한, 가는, bajo 작은, moreno 흑발, 흑색피부, mediano 중간의, 중키의, feo 못생긴, guapo 멋진, 잘생긴, hermoso 아름다운, bonito 예쁜, 귀여운, lindo 예쁜, 귀여운, simpático 친절한, 상냥한, amable 친절한, cariñoso 정 많은, 정겨운, manso 순한, 순진한, jovial 쾌활한, honesto 진실한, valiente 용감한, erudito 박식한, sentencioso 근엄한, fiel 충직한, blando 유연한, 부드러운, galante 짹짹한, virtuoso 덕망있는, estudioso 학구적인, piadoso 자비심있는, apático 무뚝뚝한, tacaño 인색한, sonso 얼빠진, 정신나간, tedio 언더리나는, soberbio 거만한, infiel 부정직한, zapo 약은, astuto 교활한, tímido 멍청한, tibio 미적지근한, tieso 고집있는, belicoso 호전적인, utilitario 타산적인, fresco 암채같은...

그러나 이 사전은 학습자가 필요로 하는 모든 표현과 어휘와 검색되는 사전이 아니므로 많은 한계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사전의 구현이 보다 큰 실효성을 거두려면 데이터 베이스가 광범위하게 확보되어야 하고 자연어 검색이 용이하도록 설계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작업은 막대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현재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IV. 결론

교수자들과 학습자들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어 의사소통 능력이 현저하게 향상하지 않는 까닭을 본 논문에서는 턱없는 학습 임

계량의 부족과 학습된 지식이 내재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탓이라고 분석하였다. 따라서 입계량을 극대화하고 자연스러운 의사소통 상황 속에서 내재화를 꾀할 수 있는 방안으로 채팅과 메신저를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그 구체적인 방법을 기술하였다.

채팅과 메신저의 활용은 학습자가 개별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학습 방법이지만, 이에 대해 교수자가 무관심해서는 학습 효과를 낼 수 없다. 교수자는 학습자가 손쉽게 채팅창과 메신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교수자들은 이러한 인터넷 도구들에 숙달되어 있어야 하며, 학습자들의 어려움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직, 간접적으로 덜어주어야 한다. 또한, “문장 사전”과 같은 보조 도구의 개발에도 적극 참여하여 보다 큰 학습 효율성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본 논문은 채팅과 메신저의 활용 방법과 문장 사전 개발 방법 등에 관해서 구체적인 제안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방법을 활용한 경우 어떠한 학습 효과가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다. 이는 앞으로 더 연구 보완되어야 하는 것으로 차후의 연구 주제로 다루고자 한다.

참고문헌

- 김경희(2003), “스페인어 기초 어휘 선정과 교수법”, 『서어서문연구』, 19, 한국서어서문학회.
- 김원필, 송전기(2003), “국내 스페인어 학습자들의 정자법 오류 현상”, *Foreign Languages Education*, 10(2), 한국외국어교육학회.
- 정찬용(1999), 『영어 공부 절대로 하지 마라!』, 서울, 사회평론.
- 최동근, 양용칠, 박인우(2001), 『교육 방법의 공학적 접근』, 서울, 교육과학사.
- 최인철(1997), “효과적인 영어 말하기 교육을 위한 제언”, 『초등영어』, 1, 한국초등영어교육연구회.
- 최재철(1999), “전자신문을 이용한 스페인어 학습 활동에 관한 연구”, 『한국멀티미디어 언어교육학회』, 2(2), 한국멀티미디어 언어 교육학회.
- Krashen(2000), 『외국어 교육의 이론과 실제: 학습인가, 습득인가?』, 김윤경 역, 서울, 한국문화사.
- Lahuerta, J. & Pujol, M.(1996), “El lexicon mental y la enseñanza del vocabulario”, *La enseñanza del léxico español como lengua extranjera*, Segoviano, Carlos(ed.), Madrid, Iberoamericana.
- Nunan, David(1999), 『제2언어 교수 학습』, 임병빈 · 한혜령 · 송혜성 · 김지선 역, 서울, 한국문화사.
- Richards, Jack C. & Rodgers, Theodore S.(2003), 『외국어 교육 접근 방법과 교수법』, 전병만 · 윤만근 · 오준일 · 김영태 역, 서울, Cambridge.

김경희

부산외대 어문학연구소

E-mail: khkim@taejo.pufs.ac.kr

논문접수일: 2004년 10월 11일

심사완료일: 2004년 11월 15일

게재확정일: 2004년 12월 10일